

전도는 사랑이다

마음속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음 페이지



마음속 작은 목소리 누가 들어줄까요?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 있어요.

조용히,
아주 작은 바람이라도
누군가가 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 있지 않나요?

어쩌면, 그 바람은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요한복음 16:24)

때로는 바로, 때로는 더 좋게, 때로는 기다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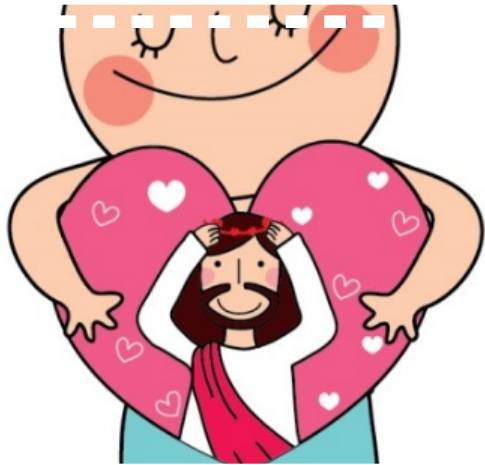


어떤 소원은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소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신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든 응답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 1)즉시, 2)넘치도록, 3) 기다림]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 히브리서 13:6, 에베소서 1:3, 시편 23:3)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전할 때,
그걸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자 합니다.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조용히 우리를 이끌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어요.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7:11, 에베소서 6:18, 요한복음 15:7)

진심을 담아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일이에요.

혼자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
말해보세요.

믿음으로, 희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언제나
그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답을 듣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단단해지고,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모든 여정은,
당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6-7, 요한복음 16:24, 사도행전 16:14, 사사기 7:13-15)

2025 사랑의 초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데살로니가전서 1:4)

하나님의 사랑
당신도 누리보세요.

작정일

2025. 4. 13 ~ 5. 18 (6주간)

초청일

2025. 5. 18 (주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동부선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동부선린교회

담임목사 곽 선 근

천현성전 | 12956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22-10
새능성전 | 13025 하남시 산곡동로86번길 42
사무실 031)793-3179 팩스 031)793-3172
www.dbsunlin.com



홈페이지

www.dbsunlin.com



YouTube 동부선린교회

검색



유튜브